

기혼자가 인식하는 30~40대 미혼 여성의 이미지

- 미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

류경희* · 왕석순**

창원대학교* · 진주대학교**

The Images of Unmarried Single Women as seen from the Viewpoint of Married Men and Women

- Focusing on Stereotypes of Unmarried Single Women -

Kyung-Hee Ryu* · Seok-Soon Wang**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 Jeon-ju University***

Abstract

In this work, we investigated the images of (unmarried) single women as seen from the viewpoint of married men and women.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wenty-seven (married) men and women of ages from twenties to sixties. By carrying out a content-analysis on the interview results, we could extract three different thematic types of images on single women, which are (1) single women seeking some outlet of their passion instead of forming a family, (2) single women who are enjoying a life of unbound liberty, unlike married men and women, and (3) single women who have distinct personalities from married men and women. Each of these three thematic types could be further classified into narrower themes of specific images. From the first theme of single women who are looking for some outlet of their passion instead of forming a family, one could extract two specific image types in which the single women choose their work as the main outlet of their passion, or else they choose self-development. From the second theme of single women who are leading a life of unbound liberty, four different specific types were found, which are single women with sexual freedom, single women enjoying liberty from the bondage of a family, single women who can freely choose men to go out with, single women who have privileges to enjoy consumption and leisure life only for themselves. From the third theme of single women who have distinct personalities from married men and women, four different types of images were found, that are

1) 본 연구는 2008년 태평양 학술문화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2) 교신저자 Ryu, Kyung Hee, Sarim-Dong 9, Changwon-Si, Gyeongnam 641-773, Republic of Korea
Tel: 055-213-3542, Fax: 055-213-3540, E-mail: ryukh@changwon.ac.kr

single women who want to avoid the hard reality of marriage life, single women who are selfish and self-assertive and leading a life that is self-centered or one that is centered around communities of only singles, single women who have secret feelings of emptiness and loneliness, and finally single women who can not find satisfaction in their life style.

The images of married men and women on (unmarried) single women are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those single women are different from us because they are not married'. That is, married men and women look upon the life of single women from the perspective of marriage life that they are experiencing.

Key words: 기혼자(Married Men And Women), 미혼 여성(Unmarried Single Women), 이미지(Images)

I. 문제의 제기

최근 대중매체에서 자주 언급되는 소위 '골드미스'와 같은 신조어의 탄생이나 TV 드라마 '삼순이'로 대변되는 30대 독신여성 취향의 많은 드라마, 영화, 연극, 기획 출판 책 등의 유행은 우리사회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미혼 여성들의 삶과 생활은 이제 새로운 사회문화적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는 추세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난 20여년 동안의 통계에 나타난 미혼 여성의 증가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싱글 미혼 여성 가구 수의 증가 비율을 보면, 1980년대 2.3%, 1990년에는 3.3%, 1995년에는 3.5%(통계청, 2006), 2000년에는 14.0% 그리고 2006년에는 15.9%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동아일보, 2006.7.19). 또한 싱글 중에서도 한국고용정보원이 대졸이상 학력에 연봉 4,000만원 이상을 받는 30~45세 사이 미혼 여성 일명 '골드미스족'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01년 2,152명이었던 골드미스족이 2006년 2만 7,233명으로 무려 11.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데이터뉴스, 2008.1.21).

이러한 일련의 통계조사 결과는 이제 결혼을 생애에서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가치관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혼 여성의 삶이 가족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부상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성인기에 가장 보편적인 결혼에 대한 선택을 유보하는 미혼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미혼이란 생활의 선택으로 발생한 라이프스타일에도 다양한 양상들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생애단계로서의 미혼 여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미혼 여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독신의 삶이 다양한 가족의 삶 중 하나의 형태로 정착 되어가고 있으며, 미혼 여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가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함인희, 2002) 현 실정에서 결혼, 독신,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재 미혼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들은 독신, 비혼, 싱글 등으로 다양하다. 미혼이라는 용어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나 언젠가는 결혼을 해야 할 수동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면, 독신이라는 용어는 자발적이고 자기 의지적인 독신주의자를 연상시킨다(김소라, 2007). 또한 현재 결혼 상태에 있지 않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혼자 사는 상태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함의하지 않는 비혼이라는 용어(심경미, 2003)가 지칭되기도 하며, 최근에는 독신을 '자유를 택한 화려한 싱글'과 같이 '싱글'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미혼 여성들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들은 미혼 여성들의 다양한 삶과 그들을 바라보는 다양한 인식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미혼 여성들을 바라보는 일반인의 인식은 대체로 과장되어 있으며, 편견적이고, 비하적인 경향(박경란·이영숙·전귀연, 2001)이 있으며, 흥미 위주의 관심에 머무르고 있는 것(전옥실·이영숙, 2001)이 현실이다. 실제 우리나라 대학생과 청소년들은 싱글 여성에 대해서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옥실 외, 2001; 이영숙·박경란, 2003).

미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미혼 당사자에게는 편견과 차별을 가져올 수 있고, 주위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적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전옥실 외, 2001). 특히 미혼 여성

의 경우 미혼 남성에게 비해 일에 대한 투자와 그 성취감이 미혼 생활의 만족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사회적 편견에 대한 어려움은 미혼 남성에게 비하여 훨씬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충선, 2002; 김경원·김태현, 2005; 차경옥, 2006; 김혜영·선보영·진미정·사공은희, 2007). 또 여성독신가구의 경우 소득규모가 낮은 계층과 높은 계층으로 양극화되는 경향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김혜영 외, 2007), 우리 사회에서 여성 독신자에 대한 이미지나 인식은 ‘골드미스’라는 한 TV프로그램의 제목이 시사하듯이 어느 하나의 이미지로 귀착시켜 가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미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그들을 다양한 가족의 삶으로 수용하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구 구성상 미혼 남성보다 더 다수이지만, 사회적 편견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개별적인 다양성 보다는 어느 하나의 이미지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미혼 여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탐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내에서 미혼 여성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된 연구로는 대학생이 인지하는 독신여성의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이영숙 외, 2003), 독신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에 대한 연구(전옥실 외, 2001), 청소년의 싱글 여성에 대한 이미지(왕석순, 2010)가 있을 뿐이다. 이들을 제외한 일반인 즉 이미 결혼을 경험한 기혼자들의 경우에는 미혼 여성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전혀 연구된 바가 없다. 이미 결혼을 경험한 기혼자들이 미혼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 탐구하는 것은 기혼자들이 자신의 결혼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반추해 볼 수 있고, 다른 삶의 길을 가는 미혼 여성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기혼자가 가지고 있는 미혼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양적조사인 설문지를 통해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즉 기혼자들이 미혼 여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은 그들의 가치관과 경험 및 의식에 따라 매우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규정된 반응의 범주에 맞추어 조사하는 것은 광범위하고 일반화된 사실만을 제공해 줄 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실들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자들을 심층 면접하여, 그들이 미혼여성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미혼 여성에 대한 편견이

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다양한 가족의 삶을 이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미혼여성에 대한 개념

독신의 사전적 의미는 ‘형제, 자매가 없는 사람’, 또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는 두가지 뜻으로 구분된다(민중서림편집국, 1998). 즉 독신은 통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지칭하며, 결혼적령기를 지났으나 결혼하지 않은 남녀들을 통칭하여 일컫는 일반적인 표현이다. 하지만 ‘독신’ 혹은 ‘독신자’라는 표현은 자발적이고 자기의지적인 ‘독신주의자’를 연상시키며, 이에 따라 많은 미혼 남녀들이 자신이 ‘독신자’임을 거부하기도 한다(김소라, 2007).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 또 다른 사회적 용어는 미혼인데, 이 역시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나 언젠가는 결혼을 해야 할’ 수동적이고 미완의 상태를 의미한다(김소라, 2007).

이밖에 ‘미혼’이나 ‘독신’을 대체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 ‘비혼’, ‘비혼 여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혼 여성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현재 결혼 상태에 있지 않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심경미, 2003), 적극적으로 결혼을 거부하는 여성에서부터 현재 결혼하지 않은 여성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우은정, 2001), 혼자 사는 상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함의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비혼’이라는 용어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동시에 ‘결혼을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여 결혼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혹은 결혼이라는 제도에 의해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이념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심경미, 2003). 결혼을 적극적으로 거부함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읽는 이로 하여금 ‘비혼 여성’과 ‘독신주의자’를 동의어로 상상하게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비혼’이라는 개념이 주로 여성주의 진영에서 등장하였고, 그들에 의해서 주로 사용되는 상황은 ‘비혼’ 여성을 결혼제도에 비

판적인 여성으로 상상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우은정, 2001).

한편, 신가족풍속도라 할 수 있는 ‘독신’을 두고 ‘자유를 택한 화려한 싱글’이라고 일컫듯이(김경원 외, 2005), 최근에는 독신을 ‘싱글’이라는 용어로 지칭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신, 비혼, 싱글이라는 용어보다는 거부감 없이 우리말로 많이 지칭되고 있는 ‘미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24세 여성 인구의 82.7%, 25~29세 여성인구의 29.2%가 미혼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초혼 연령도 여성의 경우 27.7세로 나타났기 때문에(통계청, 2005), 아직 20대 여성은 결혼을 유보한 계층으로서 30대나 40대 여성과는 다른 연령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50대와 60대 여성 인구의 경우에는 발달 주기 상 성인기가 아닌 중년기와 노년기로 구분되기에 본 연구에서는 미혼여성이라 함은 30대와 40대의 결혼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결혼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과 결혼을 경험하였으나 현재 이혼이나 사별로 인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싱글이라는 지위는 같으나 결혼생활을 경험했다는 측면에서 전혀 결혼을 경험하지 않은 미혼 여성과는 다른 집단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혼자 사는’ 미혼 여성, 즉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미혼 여성으로만 한정하지는 않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성상 독립은 결혼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혼 적령기가 지난 미혼자가 집을 떠나 독립하기가 쉽지 않기(문소정, 1995)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미혼 여성이라 함은 부모님과 생활상 주거 독립을 하였거나, 또는 하지 않았거나, 결혼을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30, 40대 미혼 여성을 말한다.

2. 미혼 여성에 대한 이미지

본 연구에서는 미혼 여성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는데, 선행연구에서 미혼 여성이 아닌 다른 용어 즉 독신, 비혼, 싱글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미지(image)란 심상, 표상, 개념, 관념, 상징 유형 등의 동의로 표현되며 어떤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느낌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류철선, 1996). 대부분의 이미지는 사람이 과거에 겪은 경험의 종합적인 결과로서 형성되는 데, 인간 행위는 지식과 정보 보다는 인간 자신이 지각하는 이미지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김동기, 1982). 구체적으로 인간은 “진실인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대해 반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신여성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의 이미지는 독신여성의 실제와 관련한 진실 여부를 떠나 독신여성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인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규완(2002)은 세상일은 실제(객관적 현실)나 메시지(상징적 현실)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미지(주관적 현실)에 근거해 반응한다고 하였다. 이미지는 세상을 보는 눈이자 세상을 평가하는 잣대인 것이다. 김동기(1982) 또한 이미지란 어떤 특정의 사물이나 사항에 대해 가지는 기억, 인상 및 태도 등의 총체로서 특정의 사물이나 사항에 대해 특정의 감정을 가지게 하는 영상이라고 하였다.

결국 이미지라는 개념은 과거에 겪은 경험의 종합적인 결과로서 형성되며, 인간의 행동은 사실적인 지식과 정보 보다는 인간이 지각하는 이미지에 의해 행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이미지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왕석순·남수정, 2008).

우리 사회에서는 전체 인구 중 소수에 속하는 독신자에 대한 실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잘못된 편견이 존재한다. 이러한 편견은 주로 사회의 고정관념에서 유래하는 이미지인데, 일반적으로 독신자들에 대한 이미지는 독신이 가지는 장점보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영숙 외, 2003). 예를 들어, Stolk와 Brotherton(1981)은 48쌍의 부부들이 완성한 “나는 30세 이상의 독신여성을 라고 생각한다”는 문장을 분석한 결과 ‘노처녀’, ‘실폐자’, ‘적당한 사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Etaugh와 Malstrom(1981)의 연구에서도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독신들은 기혼자들에 비해 안정적인 면과 신뢰적 측면에서 낮게 평가되었다.

독신자들은 어머니의 치맛자락에 매달려 있으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경제적으로 풍족하며, 여가시간이 많아서

활동이 자유로우며, 결혼하기에는 어딘가 결함이 있다는 것은 독신에 대한 대표적인 신화이다(Cargan & Melko, 1982; Lamanna & Riedmann, 1991). 이외에도 일부일처제로 제도화된 사회에서 독신을 자유, 방종, 무절제, 부도덕함 등의 이미지로 취급하는 것도 독신자들이 흔히 경험하는 불이익이다. 또한 이중적 기준(double standard)이 존재하여 독신남성에게는 허용적인 반면에 독신여성에게는 제한을 두는 규칙들이 일상생활 속에 내재화되어 있다(이정연, 2000).

독신자는 사회적 관습에서 벗어난 비정상적 사람이며, 결혼하기에 무언가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며, 미성숙하거나 또는 변덕스럽거나, 불행하거나 의기소침하다고 여겨진다. 독신자들은 부모, 가족에게 심리적인 독립을 이루지 못한 유아적인 존재이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라는 사회적 통념이 보편적이다(김경원 외 2005).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전옥실 외, 2001)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영숙 외, 2003)에서도 이러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은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 바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왕석순(2010)의 청소년의 싱글 여성에 대한 이미지에서는 청소년들이 싱글 여성이 꼼꼼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여 책임감이 강하며, 명랑, 활발한 개방적인 자유로운 전문직 여성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지만, 욕심이 많고 외롭고 이기적이고 민감하고 성격이 강하여 이성에는 인기가 없는 여성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병렬적으로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적 이미지는 일반인들이 전통적으로 싱글 여성에 대해 가지는 성격적인 단점을 그대로 내면화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사회의 가치관을 여과 없이 그대로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장 흔히 지적되는 독신자들에 대한 이미지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외로운 패배자’라고 하였으나, 실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소수에 지나지 않아서 독신을 외로운 존재로 보거나 문란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독신의 결과이기 보다는, 혼자라는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일 뿐이라며, 문제는 “독신들이 아니라 사회”라는 주장이 증대하고 있다(이영숙 외, 2003). 예를 들어, 독신자들이 고집이 세고 자기주장이 강하다는 비난을 받는데 그것은 선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독신생활이 길어지면서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자주 겪는 과정에서 나온 자기방어 경향이 강해지는 게 아닌가 한다(이정연, 2000).

이처럼 잘못된 독신에 대한 신념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독신남성과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다(이정연, 2000). 최근 독신집단으로 빠르게 진입되고 있는 고학력의 전문직 여성들에 대해서는 성취지향적이며, 다양하고 광범위한 경험에 참여하며, 자유로운 집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며(Olson & DeFrain, 1994), 독신여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너그러워졌고 이해의 폭도 넓어졌다(김애순, 1994). 싱글들의 부류가 개념화되면서 neo single족과 FI(Free Intelligent)족이 그것인데, ‘나’를 중시하는 디지털 인간인 neo single족은 하이테크 제품을 선호하고, 디지털을 능숙하게 다루며, 결혼보다는 개인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분류하고 있다(이소영·황성진, 2003). 독신여성들 스스로도 독신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사라졌으며, 독신남성과 차별 없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기도 하다(박충선, 2002).

그러나 독신여성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새로운 이미지는 여성독신자구의 경우 소득규모가 낮은 계층과 높은 계층으로 양극화되는 경향(김혜영 외, 2007)을 고려할 때, 또 다른 고정관념이나 획일화된 독신여성의 개념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편견에 대한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이정연, 2000; 박충선, 2002), 최근 대중매체를 통하여 그 이미지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미혼여성의 이미지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미혼여성들의 이미지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변화하였는지, 아니면 변화하고 있는 과도기인지를 탐색하고자 하는데, 이를 결혼을 이미 한 기혼자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보다 폭넓은 자료를 얻기 위해 서울·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권역에서 20대에서 60대의 다양한 연령

대의 기혼자 2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방법을 사용하여 질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자가 각각 경상도 권과 전라도 권에 거주하고 있었고, 두 연구자의 출생지가 모두 서울·경기도여서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기혼자들을 만나기가 용이하였다. 한 지역에 치우쳐서 정보제공자를 구하기보다는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정보제공자들을 선정하여 조사하는 것이 질적 연구에서의 타당도, 즉 내용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고, 미혼 여성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조사할 가능성이 크기에 서울·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권역으로 나누어서 정보제공자들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명의 정보제공자를 선정하여 면접함으로써 그들의 경험을 연결시킬 수 있고 한 참여자의 말을 다른 참여자의 말과 비교해서 조사할 수 있는데 이는 타당도를 위한 초석이 된다(이명숙, 2002).

정보제공자는 연구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본 연구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선정하는 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했다. 심층면담의 특성상 자기 개방을 할 의사가 없거나 자기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자료를 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보제공자 선정에서 정보제공자의 자발성을 우선적으로 중시했다. 정보제공자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면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정보제공자 선정에서 결혼 과정 중에 사별이나 이혼, 별거를 하지 않았고, 현재 배우자가 함께 동거하고 있는 평범한 결혼생활을 하는 일반 가정의 기혼남녀로 한정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정보제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심층면접은 연구자 2명이 미리 준비된 면접 가이드라인을 갖고 2009년 3월 11일에서 4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실시되

(표 1) 정보제공자 특성

정보제공자	연령	성별	학력	직업	거주지	결혼지속년수
김현철	33세	남	고졸	중고차매상사 직원	서울·경기도	2년 6개월
허경호	68세	남	고등학교 중퇴	아파트 경비원	서울·경기도	47년
조현미	33세	여	대졸	가정주부(회사원)	서울·경기도	2년
김영현	53세	남	대졸	정당인	서울·경기도	12년
박소현	55세	여	고졸	가정주부	서울·경기도	30년
배경덕	47세	남	대학원졸	무직(정치인)	서울·경기도	15년
손민자	44세	여	대졸	가정주부	서울·경기도	18년
한철호	27세	남	대졸	회사원	서울·경기도	2년
김경환	54세	남	대학원졸	교사	경상도	24년
허민호	36세	남	대학원졸	교사	경상도	8년
장미란	49세	여	대학원졸	교사	경상도	22년
홍진희	38세	여	대졸	회사원	경상도	11년
백순희	62세	여	중졸	가정주부	경상도	40년
석기성	69세	남	대졸	한약건재상 운영	경상도	42년
조상근	55세	남	전문대졸	설비업	경상도	27년
한지환	45세	남	대졸	자영업	경상도	18년
유슈민	45세	여	대졸	가정주부	경상도	18년
엄지원	52세	여	대졸	간호사	경상도	25년
박기철	39세	남	대졸	회사원	경상도	11년
박윤애	28세	여	대졸	가정주부	전라도	2년
윤두준	45세	남	대학원졸	교수	전라도	18년
정소희	35세	여	대졸	음악학원운영	전라도	10년
오초희	61세	여	대학원졸	교수	전라도	34년
김은진	43세	여	대학원졸	상담전문직	전라도	18년
김장렬	31세	남	대졸	교직원	전라도	2년
이성원	36세	남	대졸	교직원	전라도	5년
심규호	53세	남	대학원졸	교직원	전라도	25년

2) 정보제공자의 이름은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음

었다. 면접 가이드라인은 특정 주제의 개방형 질문을 던지고,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심화 질문을 던지는 반구조화된 면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평소 미혼 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probing question: 가까운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미혼 여성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미혼 여성들은 어떻게 해서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미혼 여성의 성격은 어떠한 것이라 생각되나요?(probing question: 미혼 여성들의 성격은 결혼한 사람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미혼 여성들의 전반적인 생활은 어떠한 것이라 생각되나요?(probing question: 미혼 여성들의 가족생활에서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미혼 여성들의 직장생활에서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미혼 여성들의 생활은 기혼자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등이다. 심층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면접자의 면접 태도, 질문내용, 질문 방식 등을 일치시키기 위해 연구자 2명이 사전에 논의를 하였고, 가상 면접을 서로에게 해 본 다음에 서울·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3권역별로 심층면접에 들어갔다. 심층면접의 장소와 시간은 대부분 대상자가 편안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곳과 시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였다. 심층면접 시간은 한 사례 당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정보제공자의 사전 양해를 구해 녹음을 하였으며, 면접 이후 녹취한 자료는 모두 필사본으로 전환되었다.

2. 자료분석 방법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자료분석 방법으로 주제별 분석법(thematic analysis), 내용 분석법(content analysis), 질문분석법(question analysis) 등이 있는데(양옥경, 2000), 본 연구에서는 주제별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의 과정은 크게 3단계, 즉 면접 내용의 부호화 과정, 해체화 과정, 재구성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장연집, 2000). 이 과정을 따라 본 심층면접 자료를 분석하였다.

면접 내용의 부호화를 위해 정보제공자들의 면접 내용을 녹음한 것을 한글문서작업을 통하여 자료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면접 내용을 여러 차례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거쳐서 자료를 부호화하였다. 미혼 여성에 대한 이미지

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을 핵심 언어로 부호화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통하여 나타난 공통된 답변이나 유사한 내용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은 통합하여 분류하였다. 부호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분류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이야기를 각 항목별로 정리하고, 같은 항목 내에서도 또 다시 세분화하였다. 면접 내용의 부호화 과정과 자료의 해체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주제에 대한 최종 목록을 정하게 되었고, 주제별로 내용들을 구성하게 되었다. 즉 가정 대신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돌파구를 찾는 미혼 여성, 기혼자가 누리지 못하는 자유가 있는 미혼 여성, 기혼자들과 다른 성격 특성의 미혼 여성이라는 3개의 대주제를 찾게 되었다. 가정대신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돌파구를 찾는 미혼 여성이라는 주제에서는 가정 대신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돌파구일, 가정 대신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돌파구-자기개발이라는 2개의 소주제가, 기혼자가 누리지 못하는 자유가 있는 미혼 여성이라는 주제에서는 성에 있어서 자유롭다, 가족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다, 이성과의 자유로운 만남이 있다, 자신만을 위한 소비와 여가생활에서 자유롭다 라는 4개의 소주제로 분류되었다. 기혼자들과 다른 성격 특성의 미혼 여성이라는 주제에서는 결혼의 힘든 현실을 회피하려고 한다, 자신과 싱글 중심 세계에서 살면서 이기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하다,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마음속의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다, 삶의 만족감을 찾지 못한다 등의 4개의 소주제로 분류되었고, 주제별로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혼자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미혼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알아 낼 수 있었다. 자료 분석의 전 과정에서 공동 연구자간의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IV. 연구결과

1. 가정 대신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돌파구를 찾는 미혼 여성

기혼자들은 결혼을 통해 배우자 역할, 부모의 역할, 며느리

와 사위의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결혼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 가족구성원간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데, 그러한 안정감과 친밀감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혼자들은 결혼을 통해 얻은 다양한 역할과 지위 속에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헌신해야만 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보람이면서도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 그런데 미혼 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형성되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 가정 대신에 자신의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무엇은 바로 일과 자기 계발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즉 일과 자기 계발은 가정 대신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돌파구인 것이다.

가. 가정 대신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돌파구, 일

결혼을 하게 되면서 특히 기혼여성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책임을 갖게 되며 이로 인하여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실제 연구에서도 자신의 미래상을 가정주부로 생각한 여성의 경우 직업경력이나 일에 초점을 두고 미래를 계획한 여성에 비해 보다 일찍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Cherlin, 1980) 볼 때 싱글로의 삶을 선택하는 지향성은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미혼 여성들이 자신의 꿈과 이상을 추구하면서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하고 성공적인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하기보다 싱글의 삶을 선택하게 된다고 여긴다. 기혼자들이 보기에 미혼여성들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결혼도 그들에겐 부차적인 것이고, 이상을 추구하고 성공을 지향하는 삶이 그들 삶의 목적인 것이다. 이러한 성취요인에 의해 현대사회에서는 싱글이 점차 늘어나면서 싱글의 삶을 결혼의 한 대안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결혼이었다면, 이제 직장을 통해 일정한 경제력이 확보될 경우에 독립이 가능해 굳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합인희, 2003; 김경원 외, 2005 재인용). 한국여성개발원(2002)의 연구에 의하면 30대 미혼들이 독신생활을 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직장생활'이었다. 미혼 여성들은 직장생활에서의 일이라는 구속 때문에 결

혼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보여지며, 자신의 일에 몰두해 있어 들이 아닌 하나의 삶을 즐기고, 최적의 배우자를 찾기까지 결혼을 보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심규호, 허경호씨는 미혼 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기혼자들보다 직장이라는 것이 더 절박하고, 직장생활이 미혼 여성들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기혼자들보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여긴다. 유수민씨도 "기혼자들은 가정 안에서 보람과 성취도 맞출 수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미혼 여성들은 보람과 성취를 오로지 직장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인식한다. 실제 연구에서도 미혼 여성들은 타 근무지로의 이동이 용이하고, 직장 일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매우 성취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Olson & Defrain, 1994).

나. 가정 대신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돌파구, 자기 계발

전통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행복은 가족 안에서 가족을 통해서 충족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성은 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을 위해 일하고 가족의 성장을 지켜보며 행복을 느꼈었다. 오늘날의 기혼자들은 미혼 여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틀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 진정한 자신의 행복은 곧 자기 자신의 자아성취에서 찾아야 한다는 인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며, 가족보다는 개인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혼자들은 미혼 여성들을 바라볼 때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들의 상황과는 다르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미혼 여성들을 바라보고 있다. 즉 배경터씨는 미혼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향유할 수 있어서, 그 자기만의 시간에 자신을 계발하고, 생산적인 자기를 가꾸어 나가는데 더 적극적일 수 있다"고 인식한다. 또한 미혼 여성들에게는 "자기 시간이 많이 주어지고 그 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자신이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 의욕적이고 활동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때 생산적인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시도는 미혼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고독과 외로움에 대한 하나의 돌파구로 여긴다.

정소희씨는 주변의 미혼 여성 중에 인연이 닿지 않아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혼인 점을 오히려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즉 “지금 결혼을 하지 못한 대신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꿈꾸면서 공부를 계속 더 한다든지 등의 자기 계발을 도모하고, 성공한 뒤에 그에 걸 맞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로서 성공을 꿈꾸며 자신의 일을 하기가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까운 재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혼 여성으로 있다는 것은 그러한 제약에서 자유로워서 싱글로 있는 그 상황을 오히려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기혼자들이 보기에 미혼 여성들은 가족을 위해 걱정할 필요 없이 자기 인생만을 책임지면 된다. 그래서 가족을 향해 쓰일 에너지를 자신의 일과 자기 계발 및 취미활동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의 삶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일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즐기며 살 수 있고, 자기 계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열심히 몰두하면서 미래의 성공적인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2. 기혼자가 누리지 못하는 자유가 있는 미혼 여성

기혼자들이 인식하는 미혼 여성의 삶에서 가장 큰 매력은 ‘자유’이다. 기혼자들은 미혼 여성들이 가족으로부터의 자유, 성에서의 자유, 이성과의 자유로운 만남, 자신만을 위한 소비와 여가생활에서의 자유가 있다고 인식한다. 자유는 원하는 일을 원하는 때에 할 수 있다는 것인 동시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뜻한다.

가. “미혼 여성은 가족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다”.

기혼자들은 미혼 여성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 기혼인 자신들과 분명히 차별화됨을 인식하고 있다. 즉, 기혼자들은 가족의 욕구를 중심으로 삶을 살지만, 미혼 여성들은 개인의 욕구를 중심으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기혼자들은 미혼 여성들의 가족으로부터의 자유가 편해 보이고 부러

운 측면도 있지만, 결혼을 통한 가족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기쁨과 행복이 보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가족으로부터의 얽매임을 기꺼이 감수한다고 한다. 실제 기혼 여성인 박운애씨는 “결혼생활에서 아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가정사에 얽매여 사는 것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런 속에서 생겨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기혼자들이 인식하는 미혼 여성의 가족으로부터의 자유는 가족의 개념과 자녀관에 대한 인식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기혼자들은 싱글 여성들에게 결혼도 자유로운 선택이지만, 가족에 대한 개념과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는 등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한다. 허민희씨는 싱글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의 그 당시의 선택일 뿐이고 그 선택이 미래에도 반드시 지속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지금 현재 결혼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싱글로만 결정지어 보기 보다는 언젠가는 결혼을 선택하거나 계속 싱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연속선상에서 바라보는 유연함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미혼 여성들은 자신의 미래에서 언제든지 자신의 삶을 결혼을 할 것이냐, 싱글로 남을 것이냐 선택할 수 있고, 또 그 선택은 앞으로도 선택의 의사결정 선상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조현미씨는 싱글들이 가족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혼자들과 많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즉 “결혼에 의해 생성되는 가족관계는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운명적이고 숙명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싱글들은 가족관계도 선택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기혼자들은 결혼을 통해 형성되는 가족 안에서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주어진 역할과 책임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는 반면, 미혼 여성들은 결혼도 선택할 수 있는 동시에 결혼을 통해 형성되는 운명적이고 숙명적인 관계도 스스로 선택하여 얼마든지 해체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결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고 가족이 형성이 되는데, 미혼 여성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싱글 맘으로 있으면서 아이를 원한다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아이도 입양하여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미혼 여성들은 결혼 후의 삶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지 않으며, 결혼과 가족관계를 자신이 편리한대로 선택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철호씨도 "미혼 여성들이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좋아하는 경우에는 입양이나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만을 가질 수 있고, 그 아이를 통해 싱글로 있으면서 누리지 못하는 안정감과 마음의 위안을 충족시키고자 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미혼 여성은 가족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기혼자들의 인식은 다양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점차적으로 형성되고 있어서 결혼하지 않고 싱글의 삶을 선택하는 것도 새로운 삶의 선택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싱글의 삶을 살아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한 선택이 존재하며 그러한 선택도 여러 대안들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 "미혼 여성은 성에 있어서 자유롭다".

기혼자들은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 책임이 주어지지만 미혼 여성들은 그러한 책임이나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기혼자들에 비하여 개방적인 성 태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한철호, 홍진희씨는 "미혼 여성들이 사랑하는 사이라면, 또는 사랑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성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김현철씨는 "자유로운 성생활을 위해서 싱글을 선택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한편, 박기철, 허민호, 유수민씨와 같이 미혼 여성의 자유로운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판의식을 드러내는 기혼자들도 있다. 박기철씨는 "미혼 여성들과의 대화에서 결혼하기 전에는 성에 있어서 지킬 것은 지키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 미혼 여성들이 "왜 그래야 하느냐...성생활 할 수 있지요 뭐..."하면서 성에 대해 자유로운 태도를 당당히 드러낼 때 당혹감을 느낀다"고 한다. 허민호씨는 "미혼 여성들이 성에 대해 자유로운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성을 경험하지 못하여 성에 대해 콤플렉스를 가지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유분방한 성 태도를 의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유수민씨는 "자유로운

성생활에는 성병이나 에이즈 같은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즉 미혼 여성들의 자유분방한 성 행동은 문란한 것이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성병과 에이즈라는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다.

다. "기혼자가 누리지 못하는 이성과의 자유로운 만남이 있다".

미혼 여성들은 다양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면서 만남의 폭이 기혼자들에 비해 넓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성친구와의 만남의 자유로움은 기혼자들이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는 싱글들만의 특권으로 인식한다.

배경덕, 손민자, 김은진씨는 결혼과 동시에 배우자 외의 다른 이성을 만나는 기회도 적을뿐더러 이성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 마음의 부담을 느끼면서 불편함을 경험한다. 그래서 이성친구와의 관계도 결혼과 동시에 차츰 줄어들어가고 정리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미혼 여성들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성과의 만남은 더 편하고 자유로울 것"이라 인식한다. 또한 "이성으로서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 이성 친구가 있다면 결혼할 가능성이 많았을 텐데 현재 싱글로 있다는 것은 그냥 동성친구처럼 편안하게 지내는 이성친구이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다.

라. "미혼 여성은 자신만을 위한 소비와 여가생활에서 자유롭다".

손민자, 한지환씨는 미혼 여성들이 갖고 있는 특권 중의 하나가 "자신만을 위해 소비하고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기혼자들은 자신을 위해 소비하기 이전에 배우자, 자녀, 친정과 시댁 식구들을 먼저 더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욕구충족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으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만을 위해 쓸 수 없고 가족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공동의 재산이기에 자신만을 위한 소비는 미혼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손민자씨는 "싱글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 중의 하나가 경제력"이라고 보고 있다. "경제력이 있는 여성이라면 굳이 결혼을 원하지 않아도 살아나갈 수 있고,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로 자

신만을 위해 소비하면서 욕구 충족을 해 나간다”고 인식한다. 미혼 여성들이 강력한 소비 집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경제력과 자신을 위한 과감한 소비를 하면서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실제 연구에서도 미혼 여성은 경제적으로 자유로우며, 기혼자들보다 돈을 더 많이 쓰며, 다양한 취미와 레저를 즐기며, 오락, 여행, 고급 자동차 구입 등에서 대체로 스스로에게 투자하면서 멋쟁이로 걱정 없는 생활을 한다고 하였다(Pearlin & Johnson, 1977; 김소라, 2007 재인용).

오늘날 마케팅 회사들이 재력을 뜻하는 골드와 미혼을 뜻하는 미스를 합쳐 ‘골드미스’로 칭하면서 이 골드미스가 소비 주도층으로 급부상하였다.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골드미스는 6년 전에 비해 12배 폭증했다고 한다(조선일보, 2009.6.9). 기혼자들은 미혼 여성들이 남편과 자녀들의 뒤처다꺼리에 지칠 필요도 없고, 소위 말하는 골드미스처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오로지 자신을 위해 소비하게 될 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박찬욱·박미혜·송미영(1992)의 연구에서도 기혼 여성에 비해 미혼 여성은 새로운 소비문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혼에 비해 시간적 여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으며 단순 소비가 아닌 인생을 위한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또한 박기철, 김경환 씨는 “결혼을 통한 가족생활이 그들 자신의 여가생활을 위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신만의 여가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로 옮겨가게 되는데, 싱글들은 자신만을 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특권으로 인식한다. 실제 박찬욱 외(1992)의 연구에 의하면 미혼 여성은 기혼에 비해 모험과 탐험의 욕구와 도전의식이 강하며, 이러한 강한 자신감으로 개인의 여가경험을 중시하고 그에 따른 높은 성취감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미혼 여성들은 여가생활 등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구축하고 완성하려고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

3. 기혼자들과 다른 성격 특성의 미혼 여성

사회의 통념상 일정한 나이의 성인이 되면 적절한 배우자를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 혼자 살고 있는 미혼 여성의 성격 특성은 기혼자들과 다른 면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즉 기혼자들은 미혼 여성들이 “결혼의 힘든 현실을 회피하려고 한다”, “자신과 싱글 중심 세계에서 살면서 이기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하다”, “드러내 놓고 싶지 않은 마음속의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다”, “삶의 만족감을 찾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가. “결혼의 힘든 현실을 회피하려고 한다”.

김현철, 이성원, 석기성, 백순희, 조현미씨는 “미혼 여성들이 주변에서 행복하지 못한 결혼생활을 많이 접하다 보니 결혼의 힘든 현실을 회피하고 싶어서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고, 결혼을 선택하지 못한다”고 인식한다. 조현미씨는 “그러한 생각으로 싱글로 있는 것은 인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생의 참 맛이 아닌 ‘간’만 보는 것”이라 인식한다. 또한 “힘든 것을 회피하고 덜 고생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은 ‘인생에 대한 반역’”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박기철씨는 “결혼의 부정적인 모습, 힘든 부분들을 피하고 싶어하는 싱글은 어떻게 보면 ‘나약한 싱글’”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결혼이란 정말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과정인데, 이러한 과정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나약하다는 것이다.

실제 연구에서 기혼자와 미혼자의 결혼에 대한 인식은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결혼에 대해 보다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오히려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결혼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윤경 외, 1997).

나. “자신과 싱글 중심 세계에서 살면서 이기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하다”.

기혼자들은 그들이 결혼 중심 세계에서 살듯이 미혼 여성들은 자신과 싱글 중심세계에서 산다고 인식하고 있다. 기혼자들은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결혼 전에 맺었던 친구들과의 인간관계에

소홀해 질 수 밖에 없고, 결혼을 통해 맺어지는 새로운 인간 관계에 집중하게 된다고 한다. 기혼자들과 반대로 미혼 여성들은 자신과 싱글 중심세계에서 살다보니 그들만의 편협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홍진희씨는 인식하고 있다. 즉 “미혼 여성들이 걸으로는 자유분방하고 명랑해 보이긴 하지만 대화에서 공통주제를 찾기 어렵다 보니 기혼자보다는 같은 싱글들끼리의 만남을 갖게 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지환, 김장렬, 이성원씨도 미혼 여성의 경우 “친구들이 점차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한 친구들과는 점차 소원해질 수밖에 없고, 싱글로 남아 있는 비슷한 상황의 싱글들끼리 주로 어울리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손민자씨는 결혼을 한 기혼자들과 다르게 미혼 여성은 “온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투자하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보다는 자기를 위한 삶을 살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 나이라고 할 수 있는 30~40대 성인으로서 현재 자신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가치관은 개인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현대 사회의 개인화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김태현 외, 2002). 김경환씨는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는 미혼 여성들을 볼 때, “그들이 어떤 울타리 안에서 함께 생활하려고 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다”고 인식한다. 김경환씨와 마찬가지로 이성원씨도 결혼을 선택한 “기혼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만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를 상대방 배려 없이 관철시키기 어려운 다양한 가족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도 양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면서 어울려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러한 경험이 없는 미혼 여성들은 가족 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적고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다보니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인식한다. 50대 기혼여성인 엄지원씨도 싱글인 친구들과 이야기하다보면 배려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한다.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에서 경조사를 챙기는 과정에서도 “싱글들은 자신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모는 경조사 시 고려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미혼 여성들이 배려심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미혼 여성들은 자신들이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면 하지 않

려고 하는 반면, 기혼자들의 경우에는 조금 손해보더라도 함께 슬퍼해 주고 기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허경호씨와 오초희씨는 미혼 여성들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나 배려심이 없는 것은 “결혼생활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기혼자들의 결혼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자신이 직접 결혼생활에서의 경험을 체험해 보지 않으면 결혼 생활에 대한 참 이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혼 여성들은 결혼의 세계가 아닌 자신과 싱글 중심 세계에서 살다보니 “다른 사람에게 먼저 베풀고 잘해 주기 보다는 먼저 받으려는 생각이 있어서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며 자기주장이 강하다”고 본다. 또한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이 세다 보니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결혼도 하기 어려워지는 것”으로 박소현, 조상근, 장미란씨는 인식하고 있다. 기혼자들은 결혼생활에서 친절, 시댁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도 경험하고 다양한 경험 속에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마음, 이해해 주는 마음 등이 생겨날 수 있는데, 미혼 여성은 그러한 경험이 없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기 보다는 이해를 받으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다. “드러내 놓고 싶지 않은 마음속의 공허함, 외로움이 있다”.

이성원씨는 “싱글로 사는 삶은 결혼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편협한 한쪽 삶을 경험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마음속의 공허함은 다른 것으로 감추고 싶어도 드러나게 된다”고 본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안타까움과 심지어 불쌍하다는 인식도 하고 있다. 또한 엄지원, 홍진희, 심규호씨는 “미혼 여성 하면 가족 없이 혼자 지내는 것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어서 쓸쓸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특히 몸이 아플 때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부분들이 참 힘들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싱글들은 그러한 외로움을 취미생활 또는 여러 가지 활동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일순간뿐이고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기 마련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결혼을 한 기혼자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들

과의 관계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 외로움의 공간이 미혼 여성에 비하여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다.

자신의 싱글시기의 경험을 떠올려 보는 조현미씨는 “싱글 시기에 외로움과의 싸움이 가장 큰 고생이었던 것”으로 회상하고 있다. “친 부모가 계신다고는 해도 외롭고 힘들 때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데서 외로움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싱글이라고 하면 ‘슬픈 싱글’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고 한다. 여러 가지로 바쁘게 사는 싱글들은 외로를 시간도 없다고 하지만 일로 외로움이 다 채워질 수는 없다. 미혼 여성의 외로움 중에서도 노후의 외로움을 빼놓을 수 없는데, 윤두준씨는 “미혼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 갈수록 외로움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으로 인식한다. “젊어서는 괜찮지만 나이가 들수록 직장 일에서의 전문성을 더욱더 발휘하기 어려워진다면 결혼을 더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인식한다.

김영현씨는 “오십세를 넘기면서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가 반려자로서 친구로서 옆에 있어 주는 것이 편안함을 새삼 깨닫는다”고 한다. 그래서 “함께 할 사람이 없는 미혼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혼을 통해 형성되는 가족관계는 나를 걱정해 주는 한울타리로서 역할을 해 주지만 미혼 여성들은 나이 들어가면서 친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형제자매들도 제각각 가정을 형성해 살아나간다면 무척 외로워질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박운애씨는 “노후가 되면 결혼생활이 힘들었던 기혼 여성일지라도 미혼 여성에 비하면 훨씬 행복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라. “삶의 만족감을 갖지 못한다”.

박기철씨는 “미혼 여성들이 싱글의 편안함과 자유로움으로 위안을 삼지만 진정한 속 마음은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소희씨는 “미혼 여성들이 가족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해보고 아이도 낳아 보면서 가족의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할 기회가 없는 미혼 여성들은 참 불행하다”고 보는 것이다. 유수민씨는 “미혼 여성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풍부한 삶을 산다고 해도 배우가 무

대에서 연극을 마치고 화려한 무대를 뒤로 하고 뒤편으로 나왔을 때의 그 공허함처럼 미혼 여성도 사람들과의 표면적인 관계에서는 싱글의 자유로움과 화려함을 표출하고 지내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삶에 있어서의 불만족과 심리적인 괴로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화려한 싱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일 뿐 진정한 화려함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배경덕, 엄지원씨는 미혼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젊었을 때는 자신에게 투자할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지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서 활동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서는 대인관계와 자기 계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점차 적어지고 그에 비해 외로움과 고독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삶의 만족도는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기혼자의 미혼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20대에서 60대의 기혼자 2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 자료를 내용 분석한 결과, 가정 대신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돌파구를 찾는 미혼 여성, 기혼자가 누리지 못하는 자유가 있는 미혼 여성, 기혼자들과 다른 성격 특성의 미혼 여성이라는 3개의 대주제를 찾게 되었다. 가정대신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돌파구를 찾는 미혼 여성이라는 주제에서는 가정 대신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돌파구-일, 가정 대신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돌파구-자기계발이라는 2개의 소주제가, 기혼자가 누리지 못하는 자유가 있는 미혼 여성이라는 주제에서는 성에 있어서 자유롭다, 가족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다, 이성과의 자유로운 만남이 있다, 자신만을 위한 소비와 여가생활에서 자유롭다 라는 4개의 소주제로 분류되었다. 기혼자들과 다른 성격 특성의 미혼 여성이라는 주제에서는 결혼의 힘든 현실을 회피하려고 한다, 자신과 싱글 중심 세계에서 살면서 이기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하다, 드러

내놓고 싶지 않은 마음속의 공허함·외로움이 있다, 삶의 만족감을 찾지 못한다 등의 4개의 소주제로 분류되었다.

미혼 여성에 대한 이미지들은 기혼자들이 자신의 결혼 전 싱글 시기에서의 경험과 결혼생활에서의 경험이 미혼 여성에 대한 이미지에 반영되어 있다. 미혼 여성에 대한 이미지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 대신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돌파구를 찾는 미혼 여성에서는 결혼의 삶에 열정을 쏟고 헌신을 하는 기혼자들과 달리 미혼 여성들은 가정 대신 그들의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그 돌파구는 바로 직장에서의 성공과 자기 계발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기혼자들이 보기에 미혼 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기혼자들보다 직장이라는 것이 더 절박하고 직장에서의 생활이 미혼 여성들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기혼자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고 여긴다. 또한 기혼자들은 결혼생활에서 자아실현이라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자신의 성공을 꿈꾸기 어려운데, 미혼 여성들은 자신의 꿈과 이상을 추구하면서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하고 성공적인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하기보다 싱글의 삶을 선택하게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기혼자가 누리지 못하는 자유가 있는 미혼 여성에서는 기혼자들이 미혼 여성의 삶에서 가장 큰 매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다. 기혼자들은 미혼 여성들이 성에서의 자유, 가족으로부터의 자유, 이성과의 자유로운 만남, 자신만을 위한 소비와 여가생활에서의 자유가 있다고 인식한다. 자유는 원하는 일을 원하는 때에 할 수 있다는 것인 동시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뜻한다. 기혼자들은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에 대한 정조를 지킬 책임이 주어지지만 미혼 여성들은 그러한 책임이나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기혼자들에 비하여 개방적인 성 태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인식한다. 그리고 미혼 여성은 가족주의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사대로 생활의 자유를 누리는데 별다른 제약받지 않는다. 기혼자들은 결혼생활 중에 자녀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많고 구속을 받는데, 미혼 여성들은 그러한 구속에서 벗어나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여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다. 기혼자들이 인식하는 미혼 여성의 가족으로부터의 자유분방함은 가족의 개념과 자녀관에 대한 인식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기혼자들은 미혼 여성들에겐 결혼도 자유로운 선택이지만, 가족에 대한 개념과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는 등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다고 인식한다.

또한 미혼 여성들은 이성친구와의 자유로운 만남을 싱글들만의 특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족을 위한 소비와 여가생활을 가족과 함께 해야 하는 기혼자들과 달리, 미혼 여성에게는 자신만을 위해 소비하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기혼자들과 다른 성격 특성의 미혼 여성에서는 사회의 통념상 일정한 나이의 성인이 되면 적절한 배우자를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 혼자 살고 있는 미혼 여성의 성격 특성은 기혼자들과 다른 면이 있을 것이라 인식한다. 즉 미혼 여성들이 주변의 불행한 가족생활을 보면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결혼 후 인생의 힘든 부분이 두려워 결혼을 회피하게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기혼자들에 비해 미혼 여성들은 다른 가족들과 함께 하는 삶보다는 자기중심 세계에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기혼자와는 대화의 공통주제를 찾기 어렵다 보니 싱글들끼리의 만남을 더 갖게 되기 쉽다고 인식하고 있다. 자신과 싱글 중심 세계에서 사는 미혼 여성들은 결혼 생활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결혼을 경험한 사람에 비해 적으며, 그러다 보니 이기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기혼자들은 미혼 여성들이 드러내 놓고 싶지 않은 마음속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안고 살고 있으며, 싱글의 편안함과 자유로움은 있지만 삶에 진정한 만족은 느끼지 못할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혼자의 미혼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 몇 가지 함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 여성들을 바라보는 기혼자들의 시각은 긍정적이기도 하면서 부정적이기도 한 양면성을 띠고 있으며, 상반된 인식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보다는 개인이 우선시되면서 가족이라는 틀 속에서 행복을 찾기 보다는 자

기 자신의 자아성취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은 기혼자들의 인식에도 반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가정 대신 직장에서의 성공과 자기 계발을 위해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미혼 여성에 대한 이미지에 반영되어 있다. 미혼 여성들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직장생활에 몰두하고 자기 계발을 위해 열심히 투자하는 것은 기혼자들이 경험하는 결혼의 세계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미혼 여성들의 세계인 것이다. 기혼자들은 결혼 대신 성공을 꿈꾸는 미혼 여성들의 세계를 나름대로 인정하면서 부러움과 동경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기혼자가 누리지 못하는 미혼 여성들의 자유로움이나 자신만을 위한 소비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을 그들만의 특권으로 인정할 만큼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혼 여성들을 외롭고 슬픈 싱글로 인식하고 있으며, 결혼의 힘든 현실을 회피하고, 삶의 만족을 찾지 못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인식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혼자들이 미혼 여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서로 서로 다른 다양한 모습의 미혼 여성들 속에서 단지 기혼자들의 편견일수도 편견이 아닐 수도 있으며, 또한 참일 수도 거짓일수도 있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혼 여성들에 대한 이미지는 단지 그들을 바라보는 대상들의 경험과 시각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확립화된 이미지로 고정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한다. 주변에서 미혼 여성에 대한 흥미 위주의 획일화되고 과장된 고정관념들은 자칫 그들만의 독특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미혼 여성들의 삶을 왜곡시킬 수 있고, 소외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미혼 여성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긍정, 부정의 양면성들을 공존시켜서 다양하고 유연한 시각에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둘째, 기혼자들의 미혼 여성에 대한 이미지 연구 결과들은 실제 미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사실상 많은 부분에서 일관된 결과를 제시해 주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기혼자들은 미혼 여성들이 성에 있어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으나, 실제 연구에서는 싱글의 성에 대한 개념은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혼자 산다고 하여 섹스에 대해 자유롭다고 하는 경우는 전체 1/4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성적 충동의 해결에 있어서도 대부

분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장현숙, 2002). 또한 기혼자들은 미혼 여성들이 자유로운 여가활동을 즐길 것이라고 인식하지만, 이러한 인식과 달리 실제 연구에서는 싱글들의 여가활동이 기혼집단과 다르지 않게 소극적 여가활동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윤소영, 2002). 더욱이 미혼 여성들이 일 때문에 결혼하지 못한 상태라면 ‘일’ 중심의 생활 속에서 여가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그들의 여가생활은 혼자로서의 외로움을 달래고 삶을 즐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일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주변에서 바라보는 미혼 여성에 대한 이미지와 실제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주변에서 미혼 여성을 바라보는 이미지에는 미혼 여성의 실제의 삶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고정관념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미혼 여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며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인식하는가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Stein, 1988), 반대로 자신이 경험한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도 미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기혼자들의 미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동전의 양면처럼 기혼자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고정관념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연구 결과에서 미혼 여성들은 성에서 자유롭고 이성과의 자유로운 만남이 있다는 기혼자들의 인식은 결혼에서 일어나는 불륜의 다양한 삶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결혼을 정상, 무결점으로 보는 결혼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출발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혼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그들을 누구의 시각에서 바라보았는가를 중요시하여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는 대상자들이 자신의 경험 세계에서 어떠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이해하려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미혼 여성들을 바라보는 기혼자들이 경험하는 결혼 세계에서의 고정관념(결혼을 정상, 무결점으로 보는 관점 등)을 먼저 이해하였을 때, 기혼자들이 바라보는 미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더 유연한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유연한 시각을 가짐으로써 미혼 여성들의 삶을 왜곡시키지 않을 수 있고, 결혼, 가족, 독신에 대한 고정관념도 타파할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되리라 사료된다.

셋째, 기혼자들의 미혼 여성에 대한 인식은 우선 '나와 다르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나와 다르다'는 인식을 낱개 하는 중요한 기준은 바로 '결혼'이다. 기혼자들이 미혼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결혼'이 하나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 갖고 있는 의미, '결혼'과 '비혼'의 구분지음이 기혼자들의 삶과 의식 속에 명확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결혼'이라는 기준으로 많은 것을 판단하려고 한다. 그러다보니 기혼자들은 '결혼'과 '가족(결혼-출산-양부모에 의한 자녀양육)' 이데올로기의 토대 위에서 미혼 여성들을 바라보고 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결혼 전 싱글 시기를 떠올려보기도 하면서 그 당시 싱글 이었던 자신의 경험과 결혼 후의 경험을 현재의 시점에서 재해석하고 있으며, 그러한 재해석이 미혼 여성들의 삶을 들여다보는데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기혼자들은 '결혼'과 '가족'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미혼 여성들이 결혼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혼자들과 다른 세계에서 살 것이며,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격적인 특성이 있을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즉 미혼 여성들에게도 출생가족과 같은 가족의 개념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혼자들이 결혼의 세계에서 경험하고 있는 생식가족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켜 미혼 여성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미혼 여성들에겐 가족의 울타리가 없다는 생각이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며, 가족이 없는 미혼 여성들은 '가정' 대신의 그 무엇, 즉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고 인식한다. 미혼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외로움, 여유로운 시간 등을 메꾸어 줄 돌파구는 바로 직장에서의 성공과 자기 계발인 것이다.

또한 기혼자들은 미혼 여성들이 결혼을 선택한 자신들과는 성격 면에서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다. 결혼의 경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한 사람의 성향을 다르게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혼 여성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 보는 성격들은 모두 '결혼'의 경험 여부와 연결 지어있으며, 미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 중 많은 경우 결혼을 못한 이유와도 결부되어 있다. 즉 결혼의 힘든 현실을 회피하고, 자신과 싱글 중심 세계에서 살면서 이기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하여 결

혼의 삶을 선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독신을 '선택'한 사람도 있지만 독신으로 '남겨진' 사람들도 있으며, 기혼자의 결혼 생활이 매우 다양한 것처럼 미혼 여성의 삶도 매우 다양한데, 기혼자들의 미혼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이러한 다양성을 전제하지 못하고 독신의 다양한 삶과 무관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미혼 여성의 삶에 대한 다양성이 전제되지 못한 것은 기혼자들이 '결혼'과 '가족'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미혼 여성의 삶을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주관적인 경험의 세계는 현존하는 실제의 세계를 모두 포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 한계 안에서 미혼 여성들의 이미지를 이해하여야 하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혼자의 미혼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탐색해보면서 기혼자의 남녀별, 거주 지역 별로 구분하여 이미지를 탐색해 보지 못했는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남녀별, 거주 지역 별로 구분하여 미혼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미혼 여성의 삶과 문화를 탐구해 봄으로써 그들의 실제 삶과 기혼자들의 미혼 여성에 대한 인식간의 양상이 어떠한지, 즉 미혼 여성 실제 삶보다 기혼자들의 인식이 과장되거나 낭만적으로 확대된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새로운 삶의 부분들이 누락되거나 축소된 부분은 없는지 체계적으로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경원·김태현(2005). 질적 연구를 통한 독신동기 요인과 남녀 차이. *대한가정학회지*, 43(6), 61-79.
- 김동기(1982). *현대마케팅원론*. 박영사.
- 김소라(2007). *고학력 비혼 여성의 독신문화에 관한 연구 - 새로운 생애단계의 사회적 구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애순(1994). *독신, 그 무한한 자유*. 고려원 미디어.
- 김태현·전길양·김양호(2002). *사회변화와 결혼*. 성신여자대

학교 출판부.

김혜영·선보영·진미정·사공은희(2007). **비혼 1인 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동아일보(2006). 싱글의 힘. 7월 19일자.
 데일리뉴스(2008). 골드미스족, 6년새 12배 급증. 1월 21일자.
 류철선(1996). 유치원 교사의 교사이미지 연구: Q-방법론적 접근. **유아교육연구**, 16(2), 125-141.
 문소정(1995). 다양한 가족유형의 등장과 여성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 **여성연구논집**, 6, 25-99.
 민중서림편집국(1998). **민중 엡센스 국어사전**. 민중서림.
 박경란·이영숙·전귀연(2001). **현대가족학**. 학지사.
 박찬옥·박미혜·송미영(1992). 우리나라 기혼 여성 및 미혼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비교 연구. **소비자학 연구**, 3(2), 75-90.
 박충선(2002). 독신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63-171.
 심경미(2003). **비혼 여성에 관한 연구: 30대 중반 이후 40대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비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양옥경(2000). 한국 가족 개념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6), 69-99.
 우은정(2001). **한국 사회 비혼 여성들의 욕망의 억압과 탈주에 관한 연구-30대 초반 비혼 여성들과의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윤소영(2002). 독신의 시간사용과 여가활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209-217.
 왕석순(2010). 청소년의 싱글 여성에 대한 이미지. **실과교육 연구**, 16(1), 256-285.
 왕석순·남수정(2008). 예비 가정교사들의 가정교과에 대한 이미지의 유형.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20(4), 205-221.
 이규완(2002). **이미지 삼국지**. 들녘.
 이명숙(2002). 심층면접 연구. **초등교육연구논총**, 18(1), 215-241.
 이소영·황선진(2003). 20·30대 전문직 독신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 6, 267-281.
 이영숙·박경란(2003). 대학생이 인지하는 독신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경남 및 전북지역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10), 173-184.

이정연(2000). 미혼 독신세대의 실태와 전망. **여성연구**, 8(1), 1-10.
 장연집(2000). 건강을 위한 심리학과 현상학적 질적 연구. **질적연구**, 1, 13-24.
 장현숙(2002). 독신의 심리적 성향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85-195.
 전옥실·이영숙(2001). 독신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3(3), 59-68.
 조선일보(2009). 한국의 '골드미스' 그렇게 평평 쓰다간 ... '푸어미스' 될라, 6월 9일자.
 차경옥(2006). 남성일인가구의 경제 구조 분석: 연령 및 혼인 상태에 따른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253-269.
 통계청(2005). **인구통계연보** 통계청.
 통계청(2006). **통계로 본 여성의 삶**. 통계청.
 한국여성개발원(2002).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Cherlin, A.(1980). Postponing Marriage: The Influence of Young Women's Work Expect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2), 355-365.
 Cargan, L., & Melko, M.(1982). *Singles: Myths and Realities*, Sage.
 Etaugh, C., & Malstrom, J.(1981). The effect of marital status on person percep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4), 801-805.
 Lamanna, M. A. & Riedmann, A. (1991). *Marriage and Families*. Wadsworth Pub. Co.
 Olson, D.H., & Defrain, J.(1994). *Marriage and the Family*. Mayfield Publishing Company.
 Stein, P.J.(1988). Understanding single adulthood. In Wells, J. G. Current, *Issues in Marriage and the Family*(4th ed.). New York, Macmillan Pub. Co. Stolk, Y., & Brotherton, P.(1981). Attitudes towards single women. *Sex Roles*, 7(1), 73-78.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기혼자의 싱글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20대에서 60대의 기혼 남녀 2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 자료를 내용 분석한 결과, 가정 대신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돌파구를 찾는 싱글 여성, 기혼자가 누리지 못하는 자유가 있는 싱글 여성, 기혼자들과 다른 성격 특성의 싱글 여성이라는 3개의 대주제를 찾게 되었다. 가정대신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돌파구를 찾는 싱글 여성이라는 주제에서는 가정 대신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돌파구-일, 가정 대신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돌파구-자기개발이라는 2개의 소주제가, 기혼자가 누리지 못하는 자유가 있는 싱글 여성이라는 주제에서는 성에 있어서 자유롭다, 가족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다, 이성과의 자유로운 만남이 있다, 자신만을 위한 소비와 여가생활에서 자유롭다라는 4개의 소주제로 분류되었다. 기혼자들과 다른 성격 특성의 싱글 여성이라는 주제에서는 결혼의 힘든 현실을 회피하려고 한다, 자신과 싱글 중심 세계에서 살면서 이기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하다,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마음속의 공허함, 외로움이 있다, 삶의 만족감을 찾지 못한다 등의 4개의 소주제로 분류되었다. 기혼자들의 싱글 여성에 대한 인식은 결혼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며 결혼을 경험한 '나와 다르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기혼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결혼의 세계에서 싱글 여성들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

■ 논문접수일자: 2010년 7월 29일, 논문심사일자: 2010년 8월 6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9월 8일